

국내 분야별 인명정보 관리를 위한 저자식별체계인 ISNI 활용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 연구방법 이용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SNI for the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Having Focused Group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he
ISNI-Korea Consortium managed by National Library of Korea**

오 상 희(Sanghee Oh)** · 곽 승 진(Seung-Jin Kwak)***
이 승 민(Seungmin Lee)**** · 박 진 호(Jinho Park)*****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선행연구	V. 논의 및 제언
III. 연구방법	VI. 결론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분야별 저작자, 창작자, 기여자 등의 개인과 단체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름식별체계인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에 관한 것으로 국내 학술, 예술, 문학, 음악 등 단체들의 ISNI에 대한 인식과 활용방안에 대해 조사한 연구이다. 국내 ISNI 발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13개 기관들을 선정하여 총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면담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단면담에 참여한 기관들의 인명정보관리 현황과 ISNI 활용에 대한 기대와 장애요인, 구체적인 활용 방안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ISNI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ISNI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도 함께 제안하였다.

키워드: 국제표준이름식별자, 국립중앙도서관, ISNI-Korea 컨소시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he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academics, arts, humanities, and music in Korea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NI) which is developed by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for assuring the public identities of creators, contributors, and producers to contents in the fields.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one of the official registration agencies of ISNI in Korea, launched a consortium, ISNI-Korea, with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fields to promote the ISNI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In this study, focused group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participants from a total of 13 organizations; these organization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the progress on collaboration with NLK at the ISNI-Korea consortium. The current status of the personnel or membership information management by organizations, their expectations and barriers for using ISNI, and the ISNI application to the fields have been discussed intensively during the interviews. Findings from this study could benefit NLK to develop the strategies to promote ISNI in the fields. This study also proposed follow-up studies to enhance the use of ISNI in Korea.

Keywords: International standard author number, National library of Korea, ISNI-Korea consortium

* 본 연구는 2018년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연구용역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8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 학술발표회에서 일부 내용이 발표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anghee.oh@cnu.ac.kr)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공동저자)

***** ㈜리스트 본부장(jino.kor@listinc.kr)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9년 3월 22일 •최초심사: 2019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6월 5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121-147,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6.121]

I. 서론

ISNI(International Standard Author Number)는 “문학, 학술, 음악, 미술, 영화, 방송 등 모든 창작, 제작 및 실연 분야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부여하는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Korea, 2018)”로 작가, 예술가, 창작자, 연주자, 연구자, 생산자, 출판사 등과 같이 지적 혹은 예술적 창작, 연주, 생산, 관리, 배포 관여한 모든 개인 혹은 관련 기관, 단체의 공적 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Gatenby & MacEwan, 2011). ISNI는 국제표준단체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Bibliotheque National de France(BnF), British Library 등의 국가도서관들과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OCLC), Proquest/ Bowker,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CIS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IFRRO) 등 도서 출판과 배포에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ISO는 2012년에 저자의 성, 이름, 클래스, 역할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16자리의 숫자의 ISNI 구문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발표하였다(ISO 27729).

ISNI는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작가, 창작자, 기여자 등의 저작물과 관련된 개인 혹은 관련 기관에 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국제식별체계들인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 국제표준음원번호(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Number, ISRN), 국제표준학술지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디지털개체식별번호(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등과 구별된다. ISNI와 비슷한 용도의 개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국제식별체계의 예로, 연구자 및 연구 기여자들을 위한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는데, ORCID는 연구 및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ISNI 보다는 적용의 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이와 비교하여 ISNI는 학술, 음악, 미술, 방송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SNI의 등록기관(Registration Agency)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ISNI 이용자들에게 ISNI 검색, 수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BNE), China Knowledge Cen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Bibliothèque nationale de Luxembourg, British Library, China Knowledge Centre for Engineering Sciences and Technology(CKCEST) 등의 국가도서관, 관련 기관들이 ISNI 발급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 출판기관인 Riggold는 기관 및 단체의 ISNI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음원 및 비디오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기관인 YouTube, SoundExchange Inc., Soundways도 ISNI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의 개인과 단체의 ISNI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를 목표로 국내 기관들이 각각 사용하고 있는 저자식별 메타데이터가 서로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거시스템을 통해, 통일서명, 개인명/단체명, 주제명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식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ISNI와 국내의 식별자들의 상호연계에 대한 모형을 개발 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6).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학, 학술, 음악, 미술, 영화 방송 등 모든 창작, 제작 및 실연분야의 국내 개인과 단체에 ISNI를 부여하여 창작자의 국제적인 식별을 도모하고, 통합 관리를 통한 창작물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공, 학술, 어문, 영화, 음악 등 현재 14개의 제작 및 저작권 기관들과 ISNI-Korea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소시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과 단체에 ISNI를 발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¹⁾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웹사이트를 통한 ISNI 발급 현황은 2019년 3월 현재, 개인 46만건, 단체 4만 5천건 정도이며, ISNI-Korea 웹사이트에서는 등록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ISNI 간략검색, 상세검색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ISNI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ISNI 발급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저작이나 창작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들이 ISNI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ISNI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ISNI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ISNI의 식별체계, 메타데이터로서의 기능, 국제표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ISNI 발급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관점에서의 ISNI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ISNI는 학술, 문화예술,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이나 단체식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술 분야 이외의 ISNI 활용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 음악, 미술, 방송, 문학 분야의 기관들의 ISNI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1. 국내 기관들은 저작자들의 인명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2. 국내 기관들은 ISNI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가?
3.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은 ISNI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4. 국내 기관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의 컨소시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국내 분야별 기관들의 ISNI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과 활용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컨소시엄 진행에 대한 기관별 태도와 입장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으로, 첫 번째와 두

1) <https://www.nl.go.kr/isni/>

번째 연구 질문은 국내 각 기관들의 인명정보 관리, ISNI 발급 및 활용,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ISNI-Korea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조사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에서는 ISNI-Korea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의 인명정보 관리현황 및 ISNI 발급에 인식과 기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ISNI의 존재나 실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ISNI 발급 및 활용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전자시스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점차적으로 국내 각 분야의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II. 선행연구

국내에서 저자식별체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행본의 저자 식별을 위한 가상국제전자과일(VIAF,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을 이용한 국가전자데이터 구축, 링크드 데이터, 서지정보 확장이나(이미화, 노지현 2016; 박지영 2012), 개방형연구자ID(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를 이용한 학술저자식별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조재인 2013; 김은정, 노경란 2017; 노경란, 권오진, 문영호 2018)가 있었으며 최근 들어, ISNI의 적용 범위가 분야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도서, 음악, 영화, 방송, 논문 등의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인식하고 관련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가전자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전자구축 시스템에 ISNI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이미화(2014)는 국내 다양한 고유식별자 데이터의 전자제어를 위해 ISNI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Dbpia, KISS, OPAC, KMDB, dCollection, 대중음악 DB 등을 통합하는 KISNI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전자링크드데이터 구축, MARC 레코드내 ISNI 식별자 기술 등에 대한 모형을 소개하였다. 또한, 오삼균, 한상은, 손태익, 김성훈(2018)은 국가전자구축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시멘틱 기반의 체계적인 VIVO 온톨로지 모델과 ISNI의 식별체계의 장점과 특징을 활용한 국가전자구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발급과 활용을 강조하여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ISNI를 이용, 서지레코드와 연계하여 검색정확률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VIVO기반 데이터와 ISNI와의 연계와 활용에 대해 제안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이승민, 곽승진, 오상희, 박진호(2019) 저자식별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자데이터 융합을 목표로 ISNI 중심의 데이터 융합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ISNI 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저자식별체계의 활용성, ISNI 등록기관의 정책적 역할, 저자식별체계의 사회적

가치 인식, 저자식별체계 컨소시엄 구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을 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VIAF나 ORCID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로서 ISNI를 소개하고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변희균과 오복희(2018)는 VIAF의 경우는 단행본 중심의 도서에 집중되어 전거통제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ORCID의 경우 저자들의 직접 입력방식에 따른 식별관리에 있어 관리성, 중복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ISNI를 적용한 데이터구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보안 계층으로 구성된 연구자 통합관리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성숙, 박지영, 이혜원(2017)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드 데이터에서의 인물정보 표현 및 연계방식에 대해 조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작물과 저자의 연계뿐만 아니라 인물 자체로서의 정보를 활성화 하여 링크드 데이터 품질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ISNI는 VIAF와 함께 ISNI가 활용되어 인물 정보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국가선거제어통제라는 큰 틀에서의 ISNI 활용이나 학술 등 일부 분야에 적용된 ISNI의 활용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문화, 예술, 음악 등의 분야에서의 ISNI 활용이나 모형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혜원, 최선희(2017)가 최근 학회에서 ISNI를 통한 문화예술데이터 공유와 다양한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과 상호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의 방안이나 모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음악, 방송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관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ISNI에 대한 인식과 분야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집단 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FGI는 참여관찰과 면담의 중간적인 성격의 연구 방법으로 연구진행자가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집단 면담에 함께 참여하고자 있는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거나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적이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FGI 질문은 면담이 진행되기 이전에 작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하는 반구조적(Semi-Structured) 면담 방식을 이용하였고 면담 참여자들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크게는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참여하지 않는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기관으로 나누지만,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 참여 진행 단계를 세분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이 긴밀한 단계 순으로(참여 1단계에서 4단계), 다음의 3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분석하였다.

- 집단 1.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 참여 3-4단계에 속한 기관
- 집단 2.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 참여 1-2단계에 속한 기관
- 집단 3.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집단 1은 국립중앙도서관 ISNI-Korea 컨소시엄이 구성된 이후로 기관별 협력에 있어 진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체들로 각 기관의 인명정보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 ISNI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 중인 기관이다. 집단 2는 국립중앙도서관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각 기관의 인명정보를 가지고 ISNI를 발급한다든지의 ISNI 활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 3은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기관별 인명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집단 3의 경우 국내 수많은 분야의 기관들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연구의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기관들을 1차로 선정하고, 연구 대상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각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기관들을 2차로 선정하여, 1차와 2차 연구 대상을 합친 총 300여개의 기관들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1) 학술, 문학, 예술, 미술, 방송 등의 분야 단체, (2) 아마추어 모임이나 친목 집단, 특허권 관련 단체는 현재 연구에서 제외, (3) 회원 인명 정보, 제작사 정보를 적어도 100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의 기준으로 기관을 선정하였다.

위의 선정된 집단 3의 연구대상 기관들 중에서 총 20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로 연락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추가로 보내, 국립중앙도서관 면담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인명정보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ISNI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ISNI 발급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기관의 개인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잘 못 생각하거나, 과중한 업무에 일이 추가된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면담 섭외는 쉽지 않았다. 총 20개의 기관 중에서 집단 3에는 6개의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집단 면담 문항 및 면담 진행, 마무리

FGI 문항은 국내의 콘텐츠 및 저작자 식별 관련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여, 저작자 혹은 저작자가 속한 기관의 측면에서 인식 조사에 사용된 면담 혹은 설문 문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개발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프로젝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들을 수정, 보완하였

다. FGI 문항은 (1) 연구소개, (2) 인명정보관리 현황조사, (3) ISNI의 활용, (4)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컨소시엄 역할과 기관의 참여 등 네 분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면담 문항의 순서를 바꾸거나 수정하여, 면담 참여자들이 충분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면담 마지막에는 기타 바라는 사항, 의견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다.

집단 1, 2, 3을 모두 포함하여 면담에 참여한 기관의 수는 총 13기관으로(집단 1: 4개 기관, 집단 2: 3개 기관, 집단 3: 6개 기관), 한 기관에서 한 명 이상 관련 담당자가 면담에 참여하여 총 면담 참여자 수는 15명이다(본 논문에서는 기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기관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집단 1, 2, 3의 기관별로 인명정보관리 담당자를 기본으로 섭외하였으며, 기관별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무국장, 이사 등의 임원들이 면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집단 면담은 집단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담의 내용은 면담 참가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면담을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를 제공하였으며, 모든 면담 참여자들에게 감사 인사와 추후 인명정보 관리정보 공유에 대한 협조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면담 집단별 인명정보 관리 현황 및 ISNI의 적용

가. 인명정보의 종류와 관리

면담 참여 기관의 인명정보(기관정보 포함)의 종류, 동명이인, 이형정보 등의 관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별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CMS)을 사용하고, 이를 엑셀 파일 등으로 정보를 출력하여 국가 선거기관에 인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엑셀 파일 자체로 인명정보를 관리하거나, 회원 수가 100명 이하로 적어 인명 관리가 용이한 경우 한글이나 워드 등의 텍스트 파일로 인명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집단별 인명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집단 1의 경우, 집단 2와 3의 기관들과 비교하여, 기관 모두 체계적으로 인명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동명이인, 이형정보 식별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었고, 인명정보 식별체계 관리에 있어 내부 코드를 발급하여 인명정보 레코드를 관리하거나 ORCID, IPI와 같은 분야별 식별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집단 1의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인명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미 제공하고, ISNI 발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표 1 참고).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표 1〉 집단 1: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참여 3-4단계 기관의 인명정보의 종류와 관리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답변 내용 요약
기관별 콘텐츠 및 인명, 기관명 정보의 종류	A 기관	• 작사, 작곡, 편곡 등 저작자 인명정보 관리 (약 2만명)
	B 기관	•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작가에 대한 다언어로 된 콘텐츠를 수집, 작품의 번역물을 제작, 배포 작가, 번역가 등의 인명정보 관리
	C 기관	• 저작권신탁자, 개별 보상금 분배자 (출판사) 관리 • 이미지 사진,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정보 관리
	D 기관	• 학술정보, 논문, 보고서, 과학데이터, 특허 출원서, 등록증 그 이외의 다른 웹사이트와 이와 연관된 연구자, 학술자, 연구 사업 책임자, 특허자, 등의 인명 및 기관명 관리
동명이인, 이형 정보 식별 등의 관리	A 기관	• 저작권관리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B 기관	• 작가의 해외의 여러 언어로 된 이름의 이형정보 처리, 관리 • 국내 작가, 번역가, 해외 번역가들의 정보도 함께 관리
	C 기관	• 저작권관리와 저작권료 지급을 위한 체계적인 식별, 관리 • 보상금 분배자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진행 • 수작업과 자동화 병행
	D 기관	• 메타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식별, 관리
인명정보 관리 식별체계	A 기관	• 저작물: 내부 식별자와 IPI (Interested Parties Information Code),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음악분야 저작물 코드
	B 기관	• 내부 식별자로 관리 • 작가, 작품, 번역물 등에 국제식별코드를 부여, 접근성 확대
	C 기관	• 내부 식별자로 관리
	D 기관	• 저작물은 DOI 등록 관리 • 내부 식별자, ORCID: ISNI를 병행 혹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음

집단 2의 경우는 E 기관은 인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F 기관은 기관 시스템에서 콘텐츠 위주의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인명정보 관리라고 할 만한 인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G기관은 회원관리 정도의 소수의 인명정보를 갖추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기관들 모두 동명이인, 이형정보 등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재 갖추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했다(표 2 참고).

〈표 2〉 집단 2: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참여 1-2단계 기관의 인명정보관리현황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답변 내용 요약
기관별 콘텐츠 및 인명, 기관명 정보의 종류	E 기관	• 음악분야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 가수, 연주자, 지휘자, 실연자의 저작권 신탁관리
	F 기관	• 음반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료의 징수, 분배 업무 수행 •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국제표준녹음물 코드 수집, 통계, 문제 발생 증재 관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제작자와 관련 매니저 (국내 5곳)의 정보 관리 • UCI, ISRC 등 음반과 음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신탁 음원에 대해 두 코드를 발급, 적용
	G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작가들을 위해서 창립 (100여명 회원 보유) • 2016년 표준계약서가 발효되면서 시나리오 작가들도 저작권 행사 가능 (이전에는 영화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져감)
동명이인, 이형정보 식별 등의 관리	E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만명 정도의 정도의 실연자 개인정보 관리 • 회원들의 가입, 신탁 시 회원정보신청서와 업데이트되는 앨범정보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관리
	F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자 중심으로 관리할 인명정보가 거의 없음
	G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수가 작다보니 동명이인이 없음, 있어도 관리 가능
인명정보 관리 식별 체계	E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S DB 관리와 엑셀에 동일 정보를 관리 (동시에 여러 회원 접근 불가) • 일부 필드 값이 적어 내용 모두 수록이 어려움 (예를 들어 예명이 여러개이거나 여러 음악집단에 속한 개인 실연자의 경우) • CMS, 엑셀파일 각각 내부 식별자 부여, 주민등록번호로 구분
	F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자 정보를 사업자번호로 식별 관리 • 제작자에서 제공하는 작품 정보가 연계되어 있음 • 인명정보, 즉 실연자, 제작자 관리 코드는 따로 없음
	G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회원의 정보를 워드 파일에 보관 • 내부코드 없고, 이름, 생년월일, 주요작품의 내용이 전부

집단 3의 경우는 대부분 인명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동명이인 식별 등에 대해 수작업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등 고유식별번호 활용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인명정보의 종류에 있어서도 대부분 회원정보에 수집과 연락처 관리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동명이인, 이형정보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몇몇 기관에서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었다(표 3 참고).

<표 3> 집단 3: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미참여 기관의 인명정보관리현황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답변 내용 요약
기관별 콘텐츠 및 인명, 기관명 정보의 종류	H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PD 들의 친목단체 • 협회 회원들의 신상정보 정보 제공 정도 • 기본적으로 방송 저작물은 방송사에서 관리 • 인명정보는 있으나, 저작정보는 연결되어 있지 않음
	I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 MC, 기타 진행자 등이 10,000명 정도 회원 보유, 매년 70-80명 정도 추가 • 방송 출연 시 경우 협회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 지급
	J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0명 정도의 미술 작가 회원 정보 보유 • 작가별 갤러리 사이트를 제작하여 인명정보와 작품 이미지 정보 연계 진행 중이나 쉽지 않음
	K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연예기획사들 (가수, 배우)의 연합 단체 • 370개 회원사와 소속 연예인, 매니저들도 준회원으로 관리 • 콘텐츠진흥원과 같이 대중문화기획으로 등록법인으로 법제화되어서 중사경력 확인을

		해주는 확인 단체
	L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예술 도서, 음반, 시각예술, 공연예술 정보 자료 관리 •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작물 및 관련 작가 정보 관리 • 미술작가, 창작음악, 공연예술 포함 1,000명 정도 관리
	M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제작자 회원사 리스트를 관리, 125개 회원사의 현직 대표, 이전 대표, 실무자, 업무 관련자, 감독, 작가, PD 등을 포함 • 애니메이션 작품에 다양한 아이디어 작가, 제작자, 감독, 작품 디자이너 등의 사람이 참여하고, 인명정보 과생 • 매년 발간되는 애니메이션 작품집에 회원사 소개서를 포함하는데 위의 인명 정보를 표기하고 있으나, 식별 및 관리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음
동명이인, 이형 정보 식별 등의 관리	H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관리 • 인명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음 • 엑셀에 기본 정보관리, 동명이인 등의 체계적인 관리는 하지 않음
	I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명이인, 예명 관리
	J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K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사 이름에는 동명이인, 이형정보 등이 없고, 준회원인 개인, 매니저는 일부 데이터에 해당
	L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명이인, 이형정보 식별관리체계 미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구분
	M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정보 개체 수가 적고, 제작사들이기 때문에 동명, 이형 등을 관리할 필요가 없음
인명정보 관리 식별 체계	H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I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분배, 지급을 위해 인명정보 관리 • 협회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고유 번호 부여 • 다른 추가적인 코드에 대한 필요성 없음 • 저작물 정보는 연계 되어 있으나 활용은 하지 않음
	J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활동경력, 직함 등의 회원정보 보유, 전기 경력 등의 내용 포함 •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K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명정보 관리, 내부 코드 발급 • 제작사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소속연예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경력, 입회신청, 대중문화기확인등록증 정보 등 보유 • 매니저 같은 준회원은 연락처 정보만 보유, 코드 발급하지 않음
	L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이든 인명이든 내부 식별자 코드를 발급하여 활용 •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UCI 코드를 발급하여 작품에 부여하나 활용은 거의 하지 않음
	M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개 회원사의 정보를 엑셀파일에서 관리, 내부 식별자 코드 없음 • 회원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모든 제작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

나. ISNI 발급 및 활용

면담 집단별로 ISNI 발급 및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었는데, 집단 1의 경우 ISNI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혹은 없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명한 편이었으나, 집단 2의 경우 ISNI의 발급, 활용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의견 조율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ISNI 발급과 활용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집단 1의 경우에는 저작권 단체(A 기관, C 기관)와 콘텐츠 생산 단체(B 기관, D 기관)의 두 가지 분야의 단체로 ISNI 활용 현황에 대해 조사, 비교 할 수 있었는데, 저작권 단체의 경우, 신탁회원들의 개인정보공유동의서를 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ISNI 발급을 위해 인명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어떻게 ISNI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콘텐츠 생산 단체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ISNI 발급을 위해 인명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회원들의 개인정보공유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ISNI 발급과 활용 계획도 구체적이었다(표 4 참고).

〈표 4〉 집단 1: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협력 3-4단계 기관의 ISNI 활용 현황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내용 요약
ISNI 활용 현황	A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외단체코드를 ISNI와 연계할 수 있다면, ISNI 발급 후 활용 가능 • 30,000명의 회원 중 2,000명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ISNI 발급을 위한 인명정보 제공
	B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도서관 개편에 인명정보와 작품 정보를 연계 • ISNI가 발급된다면, 적용 가능성 있음
	C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인명관리보다 분배정산이 중요해서 내부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래의 ISNI 도입을 위해, 신규 저작자의 경우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 • 국립중앙도서관 측으로부터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 받았으나, 저작자의 권리변동, 동명이인, 저작자 식별에 문제가 많아 저작물과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D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 식별자, ORCID 등을 ISNI와 병행 혹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음 • DOI가 등록된 콘텐츠를 검색하면, 저작자 정보에 ISNI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국내학술홈페이지 개편에 반영할 예정 • 접근의 용이성과 지속성이 중요 • 저작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여 ISNI가 적합함
ISNI 활용에 있어 제한점	A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 국제식별자로 ISNI를 해외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있으므로, ISNI를 추가로 사용하는 정도로 활용 가능
	B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ISNI 페이지는 한글로 제공되는데 해외에서 저작자 정보를 ISNI를 통해 추적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C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저작권과 회원 관리에 있어 정형화된 과정을 통해 정산 분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하나 구체적인 활용 효과는 없음
	D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저작자 개인의 입장에서의 ISNI 활용	A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B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들의 개인 페이지를 번역원에서 운영, 원작, 번역서 정보, 비디오 영상, 행사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제공 • 저작자들이 ISNI를 통해 저작물이 연계되고, 해외에서도 저작자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선호할 듯

	C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저작자들은, 특히 저작권협회 신탁자들의 경우 저작권 정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사항은 관심이 없음
	D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CID의 경우 이용하기 쉽고, 유용한 측면에서 활용 •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업적을 관리, 정보 공개에 활용

집단 2에서도 2곳(E 기관, F 기관)의 저작권 단체가 면담에 참여하였는데 집단 1의 저작권 참여 기관들이 ISN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거나, 회의적이었으나, 집단 2에 참여한 저작권 단체들은 각 기관 회원들의 저작권 관리뿐만 아니라 음악 실연자로서의 권익향상과 홍보, 음반저작물과 저작자들의 연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 2의 콘텐츠 생산 단체인 G 기관의 경우 ISNI 발급의 효과에 있어 저작자와 저작물 연계를 통한 작가, 작품 정보 공유라는 활용성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만, 집단 2의 경우에는 3기관 모두 아직 국립중앙도서관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인데,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아서, (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하는 인적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참고).

<표 5> 집단 2: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협력 1-2단계 기관의 ISNI 활용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내용 요약
ISNI 활용에 대한 기대 효과	E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를 통한 저작물 저작자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실연자들의 홍보와 권익 향상 기대 • 실연자들, 특히 연주자들의 경우 본인도 어떤 앨범 녹음, 공연에 참여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서 알기 어렵고, 이러한 실연자들을 검색하여 찾아보는 사람들도 관련 정보에 접근이 불가 • 저작권 징수 분배에 있어서도 저작물 연계 정보가 필요 •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실연자들을 식별하나 이를 대체 가능
	F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분야에는 이미 많은 식별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저작물, 저작자간의 연계체계는 없음, • ISNI를 통해 음반, 음원, 저작자 등이 연계되어 정보가 제공되길 기대 • 저작권협회들의 경우, 저작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자와 사용자의 정보가 불일치하여 미분배금이 발생, ISNI 발급이 이러한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식별체계로 활용 • 해외 디텍스 (해외 음악정보, 곡정보, 파일 전달 등의 법칙, 규약, 표준)에서도 ISRC를 표준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ISNI로 변경하려는 움직임 있어 (유튜브에서 적용) 국제표준으로 활용 가능성 있음
	G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를 통해 개인 작가들의 작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 • 시나리오 작가들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가들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해외에서 국내 시나리오작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 정보원에 대한 수요가 있어 ISNI를 통해 저작자와 저작물이 연계된다면, 활용 가능성 있음
ISNI 활용에 있어 제한점	E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 코드 발급과 적용 시기: 19,300명 회원에 대한 ISNI 발급이 70-80% 정도는 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내부 코드와 병행하여 사용 가능할 듯,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간의 저작권 정산을 위한 실연자 식별코드 (해외 실연자단체연합 스카프)를 발급 계획하고 있는데, ISNI도 추가로 발급하게 되면 혼란이 예상됨

저작자 개인의 입장에서의 ISNI 활용	F 기관	• ISNI가 실용화 되려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 이용자층이 형성되고, 빈번히 사용이 되어야함 (어느 정도 뷰가 나오느냐가 관건)
	G 기관	• 의견 없음
	E 기관	• 실연자들의 경우 대학강사, 교수 등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이력사항에 본인의 앨범 참여, 공연에서의 연주 기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줄 사이트가 없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작자와 저작물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기여
	F 기관	• 의견 없음
	G 기관	• 개인 저작자와 저작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제작자들에게도 작품을 홍보하고, 저작자와 연결

집단 3의 경우 저작물과 저작자를 연계할 수 있다는데 있어서 ISNI 발급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발급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거나, 내부적으로 인명 정보를 추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기 위한 인명정보 정보를 필터링 하고, 또한 여러 기관에서 받은 인명정보의 중복을 막기 위해 확인하는 작업 등의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미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UCI 코드를 예로 들어, 식별체계 발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활용 효과에 대한 검증도 실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ISNI도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ISNI를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ISNI 활용을 최대 효과는 다수의 기관이나 인명정보가 공유되고, ISNI를 발급하고 저작물과 연계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광범위한 ISNI 발급과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다(표 6 참고).

〈표 6〉 집단 3: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미참여 기관의 ISNI 활용 현황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내용 요약
ISNI 활용에 대한 기대 효과	H 기관	• 방송 PD 개인의 입장에서 저작자와 저작물 연계에 대한 활용 필요: 개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해주고, 이직에도 도움이 됨
	I 기관	• 저작자 저작물 연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J 기관	• ISNI를 통해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계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작자의 저작물 이미지 정보가 함께 검색될 수 있다면, 저작자 작품 이력 및 활동 홍보에 기여 • 협회 자체에서 이미지 연계를 진행 했으나 비용문제로 포기
	K 기관	• 연감 등의 제작을 계획중 • 연에 저작물과 관련 인물을 연계 • 제작자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시스템에서 연계 작품들이 검색된다면 홍보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을 듯
	L 기관	• 인명정보 유일식별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활용도 높을 수 있으나, 실제 식별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M 기관	• 애니메이션 관련 인명 정보 식별에 유용; 애니메이션협회에서도 인명정보 구축에 관심이 많아, 식별체계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음 (실질적인 구축 작업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의 작품 및 에피소드별 저작자, 제작 참가자의 정보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 • 제작사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저작자의 경우 자신의 작품 정보를 연계하여 검색 할 수 있다면, 실제 참여 작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후 저작자의 프로필 구성이나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 • B2B, 해외에서의 애니메이션의 상업적인 활용을 위한 접근에 있어 ISNI를 통해 저작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ISNI 활용에 있어 제한점	H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PD의 경우 본인의 작품에 대한 검색도 용이하지 않음 • 방송사마다 인명정보에 ISNI를 넣어 활용할 수 있겠으나, 방송사의 입장에 따라 가능할지 확인 필요
	I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의 개인정보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음 • 연예인들의 특성상 본인과 직접 연락하기가 어려움 • 새로 가입하는 회원의 경우 동의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수가 적어 효과가 미비 • 회원 10,000명 중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은 1,000명 정도, 이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 논의 필요 •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ISNI가 얼마나 활발히 사용될 지에 대해 의문
	J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K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L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들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여러 기관의 중복으로 발급되는 인명정보 확인 등도 기관에서 해야 한다면 일이 너무 많음 • 국제표준으로 번호만 발급할 뿐 실제 활용은 미비한 경우가 종종 있어, 코드만 너무 많이 양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한 UCI 코드도 발급은 하고 있으나, 활용 효과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어, ISNI 발급 역시 비슷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
M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저작자, 제작 참가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특히 2D 애니메이션 등 과거 작품의 창작자, 저작자 정보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저작자, 창작자 식별 및 접근이 어려움 	

다. ISNI-Korea 컨소시엄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 컨소시엄 진행과 역할 등에 대한 각 면담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집단 1의 경우, ISNI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요구가 있어, ISNI를 각 기관에서 혹은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다(표 7 참고).

<표 7> 집단 1: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협력 3-4단계 기관이 생각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컨소시엄에서의 역할과 제안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내용 요약
컨소시엄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제안점	A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다른 단체들의 상황에 귀기울이고, 각각의 특성을 잘 활용에 컨소시엄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길 바램
	B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조사가 필요 • 기관장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할 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미국의 경우 저자 이름의 이형관리를 LC에서 하고 있으나, ISNI와는 서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되어 있지 않아 정보 접근이 어려움 • 다문화도서관 등의 기관에서도 표준화된 ISNI를 이용해 저자 정보에 대한 안내가 가능함으로 유용할 듯
	C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어문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신탁단체의 경우 각자 다양한 목적과 요구조건이 있어, 이에 대한 선행조사를 활용하여 기관 및 단체에 접근, 협력을 요청할 필요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ISNI 사업설명회, 네트워크 활용, 설명회 등의 자리 마련 필요
	D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설명회, 시연회가 필요 • 11월 학술대회에 시연해 줄 수 있는지 궁금 • ISNI 아이콘 개발 필요 • 랜딩페이지에 저자 프로파일이 잘 보이도록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수정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식별체계가 있는데, 식별체계 관련 세미나, 포럼, 혹은 컨퍼런스가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ISNI 페이지에 이용자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옵션 제공 (등록, 수정, 삭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ISNI 발급 및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집단 1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기관이 ISNI 발급을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국립중앙도서관에 ISNI 발급을 신청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면담에 참여), 집단 2의 경우 ISNI 활용 및 기관별 적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업무 분담 등에 대한 의견 조율에 있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컨소시엄 진행이 더디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집단 2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 장애요인으로 기관들의 자체적인 여러 가지 식별체계 적용이라든지 ISNI 발급과 활용에 대한 내부 회의의 진행 등에 따른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표 8 참고).

<표 8> 집단 2: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협력 1-2단계 기관이 생각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컨소시엄에서의 역할과 제안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내용 요약
컨소시엄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제안점	E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 •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필요
	F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과 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기관의 직원 교체 시 인수인계에 따른 정보 교환이 필요한 경우 등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수 • 일을 무리해서 빨리 진행하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교환, 대화를 통해 일을 차질 없이 진행
	G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과 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필요 • ISNI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의 경우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일의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이를 자체 부탁
컨소시엄 진행의 장애요인	E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입장에서 ISNI 발급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ISNI 발급에 대한 필요성 불확실 • 본 기관의 업무량과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 간의 저작권 정산을 위한 실연자 식별코드 발급 등도 계획 • 문체부의 대중문화산업과와 협력 하에 MIMS(Music Intelligent Management System)라는 ISRC와 UCI, 국내표준과 국제표준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시스템 제작, 음악계 작품 단위의 식별 시스템인데 음원과 음반의 실연자 번호를 추가하는 일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아직 준비단계
	F 기관	• 의견 없음
	G 기관	• 컨소시엄 협약식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측에서 연락이 없어 기관 입장에서는 컨소시엄이 더디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었음

집단 3의 경우 컨소시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식별표준인 ISNI 발급과 활용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ISNI 발급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내 여러 가지 식별체계표준 사업에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취지,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표9 참고).

〈표 9〉 집단 3: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 미참여 기관이 생각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컨소시엄에서의 역할과 제안

구분	면담 참여기관	면담 내용 요약
컨소시엄에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의 역할 및 제안	H 기관	• 의견 없음
	I 기관	• 의견 없음
	J 기관	• 의견 없음
	K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노출시켜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 • ISNI 쓰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L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NI 발급에 대한 취지와 국가 여러 기관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 • ISNI를 발급하여 기관 인명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후 활용 실태에 대해 인명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공유하여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ISNI는 국제표준으로 다수의 기관의 인명정보에 적용이 되고, 저작자와 저작물의 정보가 포괄적으로 연계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다수 기관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 및 노력이 필요
	M 기관	• 의견 없음

2. 인명정보 관리를 위한 ISNI 활용에 대한 기대 및 장애요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N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ISNI 발급과 배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ISNI 활용에 있어 기관별 기대 하는 점과 ISNI 발급과 배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ISNI 발급과 보급에 있어 기대 효과는 두드러지게, ISNI 발급의 장애요인은 최대한 보완하여 현재 혹은 미래 컨소시엄

기관들이 ISNI 발급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IV.1에서는 면담 집단별로 상세한 인명정보 관리현황에 대해 이 논문에서 보고하였지만, ISNI 활용에 대한 기대 및 장애요인의 경우, 어떠한 면담 집단에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기관들의 공통적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면담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ISNI의 활용에 대한 기대와 장애요인을 요약하였다.

가. ISNI 활용에 대한 기대

첫째, ISNI는 저자식별체계로서 분야를 망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집단 1, 2, 3, 모두 ISNI가 저자식별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동안 기관에서는 인명을 식별할 때 사용하던 생년월일 등의 수동적인 정보 확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장기적으로 보관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ISNI를 인명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다. ISNI는 학술 분야에 사용되는 ORCID, IPI, ICN처럼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망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ISNI 활용의 장점이라고 여겼는데, 이는 한명의 저작자가 작가, 미술가, 예술가, 방송인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예명을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아카이브, 시스템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저작자 정보에 대해 ISNI를 이용하여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각 분야별 저작자들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포털 사이트 등에서의 ISNI를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저자식별 체계에 대한 다양한 미디어와 시스템에서의 활용 등에 기대하고 있었다. 기관별로 ISNI 이외의 여러 가지 식별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저작물에 대한 식별체제로, 저작자의 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작물 생산에 관여하는 기관의 경우, 저작자 정보에 대한 식별체계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었고, 저작권 관련 협회의 경우, 인명 정보를 기준으로 저작정보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인명정보 자체에는 내부적으로 부여한 코드 이외에 표준으로 사용하는 식별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둘째, ISNI는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계하는데 효과적이다. 면담에 참여한 집단 1, 2, 3 모두 ISNI가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사용될 때의 활용 효과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가장 이상적인 활용의 효과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콘텐츠 생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에 산재되어 있거나 미처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저작자의 저작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있어, 저작자와 저작물 연계가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는 저작자 개인의 이력사항과 작품 홍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서로 연계된 저작자와 저작물 정보가 국립중앙도서관 ISNI-KOREA를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역시 저작자와 저작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ISNI는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해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콘텐츠 생산 기관의 경우, 특히 저작자의 해외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외 제작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국내 저작자나 작가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각 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에서 자세한 이력사항이나 작품 활동, 저작물 등에 대한 연계가 없으므로, 각 기관에서 배포하는 소수의 자료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ISNI 번호가 발급되고 보편화 되고, ISO의 ISNI.ORG 사이트에서 국내 저작자 정보가 등록된다면, 해외 제작자나 독자들이 ISNI 번호를 통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앞에서 언급한 저작자와 저작물 연계로 최근 작품 활동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넷째, ISNI는 분야별 시스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식별체계로 활용이 가능하다. 면담 참가자들은 ISNI의 활용에 있어, 개별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관이 속한 분야의 다른 기관들도 모두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ISNI를 사용한다면, 기관들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권기관의 (F 기관) 경우 ISNI 발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음악정보 관리 표준인 디렉스에서 기존 식별체계를 ISNI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후 이러한 기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ISNI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협의회를 비롯하여 개별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분야별 상황에 맞는 ISNI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여러 기관들의 요구를 함께 수용,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 ISNI 활용의 장애요인

첫째, 사회적으로 ISNI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구성된 면담 집단 3의 경우 면담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ISNI에 대한 전혀 몰랐으며, 면담 참여를 통해, ISNI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약 20개의 기관에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하여 ISNI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20개 기관에서 모두 ISNI 대해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ISNI의 개념이나 활용 등에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기 어려웠다.

둘째, ISNI 발급 참여에 대한 망라성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알 수 없다. ISNI 활용의 기대 효과에서 언급되었던, 분야를 망라하는 저자식별이나, 저작자와 저작물 연계 등은 국가 및 여러 콘텐츠 생산 관련 영리, 비영리기관들이 ISNI를 적용하여, 대다수의 저작자들이 번호를 발급받고, 저작물과 연계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 도서 자료처럼 정해진 포맷이나 납본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기가 어렵고, 기관의 입장에서도 수십만 명의 저작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ISNI 발급의 동의서를 얻는다는 것이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실현 가능할 수도,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ISNI 발급에 있어 기관의 업무 부담이 있다. 기관들은 ISNI 발급을 위해 누가 주도적

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기관들이 ISNI 발급을 위해 기존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동의서를 따로 받거나 혹은 신규회원일 경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포함시켜 회원가입을 받기도 하나, 기존회원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전체 회원 식별자로 ISNI를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예술, 방송 분야의 저작자들은 기관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편인데, 이들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어떻게 기관에서 추가 업무를 진행해서 수집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여러 기관의 중복으로 발급되는 인명정보 확인 등도 기관에서 해야 한다면 ISNI 발급을 위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저작자와 저작물 정보를 함께 요청하였는데,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정보를 추려내는 것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기관에 부담이 될 수가 있음을 지적했다.

넷째, 종류별로 많은 인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경우, ISWC, ISRC 등의 국제표준식별체계 등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식별체계를 추가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식별체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생길 혼란을 걱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의 식별체계와의 차별성과 활용성에 대한 자세한 사례 정보를 원하기도 했다. 특히, UCI의 경우 저작권 위원회가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인프라 구축의 목적으로 기관별 저작물에 발급하도록 장려하여, 많은 작품들에 UCI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UCI 활용에 있어, 기관의 입장에서는 발급하느라 들인 수고에 비해, 자체 콘텐츠 관리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ISNI도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섯째, 분야별로 저작자, 제작자 정보를 관리 이용할만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부재하는 것도 장애요인의 하나였다. 미술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J기관, M 기관)들의 경우, 저작자 혹은 제작자의 미술 이미지, 애니메이션 영상 등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와 상업적인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나, 서버 구축, 이미지, 영상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생산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인데,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부재는 일차적으로는 ISNI 발급을 위한 저작자, 제작자 등의 인명정보를 수집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며, 이차적으로는 저작자, 제작자의 ISNI를 발급한 이후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분야별로 통합된 디지털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프로젝트나 컨소시엄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분야별 기관들은 국가 프로젝트나 국가 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NI 발급을 위한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이러한 기관별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들과 협의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분야별 기관들이 ISNI를 발급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기관들의 인명 정보 관리에서의 입장과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 발급처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각각의 입장에서의 ISNI 활용에 대한 기대와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세 개의 면담 집단별로 인명정보를 관리하는 방법, 기술, 시스템, 관리 범위, 방식 등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ISNI를 발급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활용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ISNI 활용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보 연계, 식별, 해외 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Korea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면담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 ISNI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국내 ISNI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SNI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ISNI-Korea 컨소시엄 협력을 요청하는 기관들에게 국가전자시스템 구축에 있어 다른 기관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이 ISNI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하는지, 단순한 저작자와 저작물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통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의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 협력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 할 것을 기관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ISNI-Korea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들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컨소시엄 단계별로 국립중앙도서관의 ISNI 발급 절차와 기간, 발급 상황 등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협력기관에게 진행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 ISNI 발급에 필요한 저작자 정보, 저작물 연계 등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ISNI 발급에 적극적이며, 발급 이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두고 커뮤니케이션 하겠지만, ISNI 발급에 소극적인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발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NI API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과 기타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컨소시엄 기관에 알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과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업무 분담 및 조율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협조 사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면담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저작자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수집해야 하는 부분에서 절차를 최소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팀과 협의하여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네이버 인물정보의 경우, 인물별로 개인의 정보 이용관련 동의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기관과의 협약에 있어, 법적인 문제들은 없었는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ISNI 발급 및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면담에 참여한 몇몇의 기관들은 ISN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ISNI가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알고 싶어 했으며, 성공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기관에서 어떻게 ISNI를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용 사례 들을 ISNI 발급에 대해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영향력 있는 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기관의 인명정보에 ISNI 발급 등에 대하여 협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면담 참여 기관들도 이러한 포털 기관들의 인명정보 관리에 관심이 많았으며, 음악 분야에서는 유튜브에서 ISNI를 발급한다는 소식에 반응하여 ISNI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과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국가 전거 시스템으로 부터의 권위 있고, 정확한 저작자와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ISNI 발급의 기대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분야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ISNI 활용을 위한 제안

본 연구는 ISNI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로 분야별로 인명정보 관리 현황과 ISNI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FGI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ISNI에 대한 활용 가능성, 우려하는 점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기관별 공통의 기대나 우려 사항이 있었고, 또한 분야별 기관에 따른 ISNI에 대한 인식, 활용에 대한 의견이 달라, 분야별 기관의 요구와 기대에 상응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야별로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한 ISNI 활용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기관들은 크게 저작권 관련기관과 콘텐츠 생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기관의 ISNI 활용 목적, ISNI 적용 시기, ISNI와 다른 식별체계의 사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NI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개 종류의 기관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산기관의 경우 저작자와 저작물을 연계하는 데이터 통합에 대한 ISNI의 활용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ISNI 활성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저작권 관련 기관의 경우 ISNI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실제로 저작물과 저작자 관리에 있어 ISNI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특히 저작권 관련 기관에서는 국내 다수의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에서의 ISNI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았으며, 저작권단체포털 등 국내의 기관에서 ISNI를 사용한다면, 자신의 기관들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저작자관련 식별코드는 표준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ISNI의 저자식별체계에 대한 장점이 강조된다면, 저작권단체에서도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음악의 경우 본 연구 면담에 참여한 13개의 기관 중 다른 분야에 비해 수적으로도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한 분야(13개 기관 중 3기관, 약 25%)였으며, ISNI 활용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음악관련 기관들의 경우, 해외 음악 및 음원 관리 단체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해외 단체들과 공통적으로 IPI, ISWC, ISRC 등을 이미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식별체계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수,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들에게 부여된 식별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어, 기관들에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렇게 저작자에 대한 식별체계인 ISNI를 적용했을 때의 저작물과의 연계 등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예술, 미술의 경우, 면담에 참여한 두 기관의 예술, 미술 관련 콘텐츠 운영과 적용, ISNI 활용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랐다. L 기관의 경우 미술 보다는 훨씬 다양한 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나, 두 기관 모두 미술관련 인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비교해 보았다. 두 기관 모두 미술 분야의 상당한 인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L 기관의 경우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저작자와 저작물의 연계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상태였고, J 기관의 경우 저작물의 이미지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구축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예산, 기술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두 집단의 면담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특이했던 점은 L 기관은 이미 UCI를 미술 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인지를 하고 있어 ISNI도 같은 절차를 밟을까 우려하고 있던 반면에, J 기관의 경우 저작물과 저작자 연계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ISNI 활용에 대한 기대가 달랐다. 이러한 두 기관의 입장은 예술, 미술 분야의 ISNI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ISNI 발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경우, 면담에 참여한 두 기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관으로 방송분야 저작권관리, 콘텐츠 생산자의 입장에서의 ISNI 활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우선 두 기관 모두 ISNI의 개념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이었고, 이러한 인명식별체계의 활용에 대해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명정보에 대한 고유 식별체계를 제공하고, 저작자와 저작물은 연계할 수 있다는 데는 공통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으나, 실질적으로 ISNI를 기관의 인명정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I 기관의 경우에는 방송 실연자(특히 유명 연예인)으로부터 ISNI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고, H 기관의 경우, PD가 소속되어 있는 방송국들이 독자적으로 인명정보와 각각 PD들의 프로필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물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

려운 실정이었다.

문학의 경우,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여러 작가와 기타 기관에 접촉하였으나, 면담에 참여 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ISNI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두 기관(B 기관, G 기관)이 면담에서 각 기관의 인적정보 관리와 ISNI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기관의 공통점은 저작물과 저작자 연계가 ISNI에 대한 가장 큰 활용성이라는 것과 두 기관 모두 문학작품 작가, 번역가 혹은 시나리오 작가들의 정보와 그들의 작품의 정보에 대한 해외 독자, 해외 배급사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VI. 결론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본 연구는 학술, 음악, 미술, 방송, 번역, 애니메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각 기관별 인명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ISNI 발급과 활용에 어떠한 긍정적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와 연관시켜 조사하였다. 이러한 ISNI 발급에 대한 환경 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분야별로 인적정보 관리 방식이 각각 다르고, ISNI 활용에 대한 기대 역시 분야별로 어떻게 인적정보 식별 및 저작물 연계 등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분야별로 특화된 ISNI 모델 적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한, 각 분야별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음악의 경우, 3개의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분야별 ISNI 적용에 대한 시스템을 구상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적용하기에는 면담 참여 기관이 모두 저작권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앞서 비교한 저작권 단체와 콘텐츠 제작 기관과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음악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기관에서의 인명정보 관리 및 ISNI 활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술 분야의 경우 D 기관이 본 연구에 참여하여, ORCID 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비영리 국제 표준으로 ISNI의 활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기관의 의견에 편중하여 학술분야에 ISNI 활용에 대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관들의 ISNI 발급과 활용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서는 몇몇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저널에 논문 투고 시 학술연구자들이 ORCID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ISNI도 ORCID와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국내 학술 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술 연구자들의 ISNI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최근 “데이터 융합”을 목적으로 통합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인지원센터, 대표미술관 등의 기관들이 각각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검색,

메타검색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은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으로도 확장하여, 기관별 유형별 다른 디지털 자료의 형식 통합을 위한 틀을 제작 하는 등의 논의가 몇 차례 오고 갔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였다. 예술, 미술 분야의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인명정보 통합이나 정보 구축에 있어 ISNI를 적용한 통합 서비스에 대한 활용성, 효용성 등에 대해 조사하여, 예술, 미술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분야의 ISNI 활용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 연예제작 등의 기관에도 접촉하여 면담을 시도하였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ISNI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알지 못하고 있어, 그 활용도를 짐작하지 못했다. 면담에 참여한 두 기관의 경우 하나는 저작권 관리기관의 입장에서 다른 하나의 기관은 PD 회원사 정보만 있어, 두 기관 모두 방송분야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방송 콘텐츠 제작, 배포, 관리 등의 기관들의 (예를 들어, 방송국) 인명정보 관리와 ISNI 활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방송 분야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경우, 본 연구를 위해 국내 여러 작가와 기타 기관에 접촉하였으나, ISN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인지, 컨소시엄 미참여 기관의 경우 면담에 참여 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면담에 참여한 두 기관에서는 ISNI의 저작물과 저작자 연계,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해외 접근 향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G 기관의 경우, 현재 작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국내 전 시나리오 작가를 대상으로) ISNI 발급이 가능하며, ISNI 정보내의 작가의 작품 정보와 장르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시나리오분야에서의 ISNI발급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분야의 경우, 하나의 기관만 연구 면담에 참여하긴 했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성상 ISNI에 대한 다양한 적용에 대한 시사점이 있었다. 애니메이션은 ISNI를 부여하기 위한 저작자를 구분해 내는데 있어 다른 분야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만화의 원작을 만든 원작자와 (2)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제작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제작사의 경우, 제작사의 현직 대표에게 인명을 바탕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보다는 제작사라는 회사명에 ISNI를 부여하여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작가와 이를 제작하여 대본을 만든 작가가 다를 수 있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제작사가 애니메이션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사실, ISNI는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구분을 목표로 하는 식별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작사, 원작자를 포함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ISNI를 부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애니메이션 제작 참가자를 저작자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참가자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바탕으로 창작과 배급에 기여한 저작자들에게 ISNI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정, 노경란. 2017. 국가 차원의 ORCID 기반 저자 식별자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151-174.
- 국립중앙도서관. 2016.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노경란, 권오진, 문영호. 2018.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영향력 추적을 위한 ORCID 데이터 활용.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05-406.
- 박지영. 2012. 링크드 데이터 방식을 통한 서지 정보의 확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1): 231-251.
- 변희균, 오복희. 2018.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 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 식별자의 통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139-155.
- 오삼균, 한상은, 손태익, 김성훈. (2018). VIVO 를 활용한 국가적 전거구축모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3): 165-187.
- 이미화. 2014. 전거제어를 위한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 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3): 133-151.
- 이미화, 노지현. (2016).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47-69.
- 이석형. 2014. 학술논문 저자 소속기관 식별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4): 391-410.
- 이성숙, 박지영, 이해원. 2017. 링크드 데이터에서 인물 정보의 식별 및 연계 범위 확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3): 7-21.
- 이승민, 곽승진, 오상희, 박진호 (2019). ISNI 기반 데이터 융합을 위한 저자식별체계 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29-51.
- 이혜원, 최선희. 2017. ISNI 를 통한 문화예술데이터 공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05-306.
- 조재인. 2013. ORCID 기반의 학술 연구 결과물 저자명 식별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45-62.
- Gatenby, J. & MacEwan, A., 2011. "Hello, My name is ISNI." *Information Standard Quarterly*, 23(3): 4-9.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eon, Hoi-Kyun and Bok-hee Oh. 2018.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researcher identifiers based on the ISNI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139-155.
- Cho, Jane. 2013. "A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s for author identification system of research outcome based on ORCI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45-62.
- Kim, Eun-Jeong and Kyung-Ran Noh. 2017. "A study on utilization of ORCID based author identifier at national Lev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151-174.
- Lee, Hyewon and Seon-Heui Choi. 2017. "A suggestion for sharing of the cultural and art data using ISNI".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305-306.
- Lee, Mihwa. 2014.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ISNI for authority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133-151.
- Lee, Mihwa and Jee-Hyun Rho.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47-69.
- Lee, Seok-Hyoung.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identified data of author's affiliation in academic pap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25(4): 391-410.
- Lee, Seungmin, Seung-Jin Kwak, Sanghee Oh, and Jin Ho Park. 2019.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name identifier system for ISNI-based data integr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29-51.
- Lee, Sungsook, Ziyong Park, and Hyewon Lee. 2017. "Expanding the scope of identifying and link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Linked Data: Focusing on the Linked Data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3): 7-2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6.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for Advancement of National Resources Union Catalog: Final Report*.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oh, Kyung-Ran and Kwon Oh-Jin, Moon Young-Ho. 2018. "Utilization of ORCID data to track the performance impact of national R&D inve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405–406.

Oh, Sam G., Sangeun Han, Teaik Son and Seonghun Kim. 2018. “Constructing a model for national authority control utilizing VIV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165–187.

Park, Ziyong. 2012. “Extend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using linked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231–251.

